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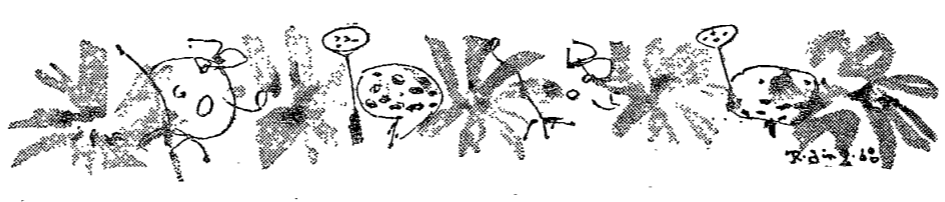
演映科卒業 公演
「와이나 아저씨」
「와이나 아저씨」(제6회)는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와이나 아저씨」는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모순克服 못한 悲劇
체홉의 晩年 傑作
「와이나 아저씨」는 체홉의 晩年 傑作으로, 모순을克服하지 못한 悲劇을 그린 것이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河德祚
「와이나 아저씨」는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한국中小企業의 諸問題
— 企業倒産을 中心으로 —
林基善
中小企業의 倒産은 國家經濟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支援와 企業가 自己의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경영組織 확립 先行
유능한 經營者를 養成
資金運用 方法의 개선
企業經營에 있어서는 組織의 확립과 經營者의 養成이 先決條件이다. 또한 資金의 有效한 運用을 위한 方法의 개선도 重要하다.

受賞者의 辨
담담한 기쁨
河德祚
受賞者의 辨은 受賞者의 眞實한 感情과 坦率한 態度를 보여준다. 담담한 기쁨은 眞正한 榮譽이다.

不連續線의 道程
李元揆
不連續線의 道程은 社會의 變遷과 個人의 成長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女大生 序說
「와이나 아저씨」는 女大生의 生活와 感情을 眞實하게 그려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와이나 아저씨」는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말의 유통력 부족
〈詩〉 □徐廷柱□
말의 유통력 부족은 社會의 弊病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支援와 企業가 自己의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主題意識이 희박
〈小說〉 □郭夏信□
主題意識이 희박한 小說은 讀者의 注意를 끌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作家가 自己의 特色을 살려야 한다.

새로운 양식을
〈戲曲〉 □李根三□
새로운 양식의 戲曲은 觀衆의 注意를 끌고 社會의 弊病을 暴露한다. 이 작품을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受賞者의 辨
담담한 기쁨
河德祚
受賞者의 辨은 受賞者의 眞實한 感情과 坦率한 態度를 보여준다. 담담한 기쁨은 眞正한 榮譽이다.

不連續線의 道程
李元揆
不連續線의 道程은 社會의 變遷과 個人의 成長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女大生 序說
「와이나 아저씨」는 女大生의 生活와 感情을 眞實하게 그려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와이나 아저씨」는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195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신영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날카롭게 번득이는 위트, 찌르는 듯한 풍자와 유우머로 버무려진 郷土美의 향연!
여기에 우리 교유의 전통을 강조하는 양식의 의결이 있고, 내일의 새 한국의 비전이 있다
알뜰한 事緣, 절절한 情恨과 韓國의 哀歎을 담은 格調 높은 옛세이!!
豪華洋裝 美麗한 케이스 4.6版 300面 값350원
翰林出版社
서울특별시 중구 경교로 111번길 11호
電話 5146 7484
各大學指定書店 特別販賣中
延世大教授 全圭泰 著